



셋째, 무엇이 우리의 향기인가요?

1) 첫째 우리들의 말이 향기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말 이건 다 악취입니다. 향기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서로에게 해주고 있는지 잘 점검하여 향기가 나는 말이 나오길 축복합니다.

2) 두번째 우리들의 표정이 향기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해주고, 미소 지어줌으로 우리의 표정이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향기를 뿜어내시길 축복합니다.

3) 마지막 세번째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고 공손하게 할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이 향기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우리들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 도 ..... 기도제목 나누기 ..... 다 같 이

찬 송 ..... 301장 ..... 다 같 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

모두가 행복해지는 한가위



추석명절  
가정예배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계산제일교회



## 예배로의 초대 ..... 인 도 자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드립니다.

## 신앙고백 ..... 사 도 신 경 ..... 다 갈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찬 송 ..... 559장 ..... 다 갈 이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말씀 ..... 고린도후서 2장 14-17절 ..... 인 도 자

## 설 교 ..... 인 도 자

추석은 예부터 풍성한 오곡백과의 수확을 감사해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가족, 이웃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우리나라의 고  
유 명절입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성함을 상징하며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이 풍성한 한가위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보내기 위해 하나  
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향기를 낼 때 내 향기를 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향기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예  
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을 점검하지 말고 나를 점검  
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가 아니면 사람 생각이 나는가  
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에게 예수님의 모습  
이 보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이 생각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둘째,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향기입니까 냄새입니까

두 번째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지금 내가 품고 있는게 향기인가  
냄새인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몸이 경  
직되게 만들고 마음이 경직되게 만들고 표정이 굳어지게 만드는 사  
람인가 아니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시선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것  
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분들에  
게 억압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예  
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옆에 가면 그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푸근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더 나아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향기입니다. 향  
기는 하는 게 아니라 향기는 그냥 그곳에 있지만 해도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를 통해 예수 향기  
가 나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의 삶 속  
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목표이며 매력적  
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매력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냄새가 아닌 향기  
가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